

## 이타적 행동이 많은 세상에 살고 싶다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최 상 목

사람들에게 가장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던가, 혐오스런 벌레나, 무서운 짐승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같은 사람들끼리 상대방의 행위에 의해서 더 많이 일어난다. 노여움을 느끼는 감정들은 타인을 해치고 싶게 만들고, 사랑과 동정, 감사의 감정들은 타인을 돕고 싶게 만든다. 사람을 비롯한 동물들은 자기와 다른 존재들을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행위를 한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타인에게 유익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이타주의(Altruism), 또는 이타적 행동이라고 한다. 이타적 행동의 수혜자가 누구보다도 친척관계이거나, 자식, 부모 관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남은 당연한 일이다. 인류의 역사의 상당한 기간 동안 지배해 왔던 사회적 단위가 가족 및 가까운 친족들로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 설정이었다. 이러한 응집력이 원숭이나 다른 포유류보다 한층 강력하게 구현된 것은 인간 고도의 지능을 통해서 더욱 견고히 된 것이다. 자기의 친척을 돕는다는 것은 유전자가 스스로 돕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타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스스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타 행동이 진화되어 혈연 선택이 되는 셈이다. 친척 간의 이타적 행동은 촌수에 따라 다르기도 하며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기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자식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하는 진화적 의미의 번식수명에 따라 조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희생적 행동은 수혜자가 갖고 있는 감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감정의 흐름과 같은 이치이다. 또한 이타적 행동의 종류와 수준은 상당한 정도까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인간의 사회적 진화는 유전적인 것보다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것처럼...

이타적 행위는 비용과 이득 면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다른 개체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은 어떤 도덕적 감정을 수반하면서 그 대가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도덕적 감정은 예측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의 기회를 맛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자선기관에 익명으로 거금을 기부하는 행위나 난민수용소 같은 곳에서 병든 사람을 돌보아 주는 행위나, 허물며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식당에서 웨이터에게 팁을 두둑히 주는 행위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탐욕을 혐오하여 자기 야심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경계하며 사심 없는 이타적 행동주의자를 존경하게 마련이다. 일반적인 도덕적 수준으로 이타주의는 선이고 이기주의는 악이라는 설정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타주의자는 많아지지 않고 있음은 무슨 까닭일까? 사회생활 속에서

이타적 행위는 본인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자체를 위해서 이득이 되는 일임엔 분명하다. 개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집단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집단의 안정은 곧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행동과 분란만을 일으키는 집단은 생존능력이 빈약해짐은 물론이다. 「거짓행동을 해 봐야 득 될 것 없어! 정직하면 복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가장 힘든 진리이기 때문이다. 항상 협력할 준비가 된 생물만이 영구히 살아남아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기회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집단의 존립은 늘 협력하는 성향을 띤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타적 행동은 일방적이기 보다는 서로 호의를 주고받으며 교환될 때 더욱 진화하게 된다. 동정과 신뢰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만들며 감사와 충성은 호의에 보답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호의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에 맞는 자질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호감, 동정, 감사, 죄의식, 수치심, 분노 같은 감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인간은 호의적 행동을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구사해 나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또한 좋아한다. 또한 베풀 수 있는 호의를 베풀지 못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 사람을 응징해주는 사람도 또한 좋아한다. 감사나 연민의 감정은 놀라울만큼 계산적인 것이다. 감정이란 인간이라는 사회적 동물이 서로 호혜성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기 위한 정교한 도구이다. 때문에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는 이유가 된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인간의 내부에서 부지런히 주관알을 굴리면서 손익을 따져 실제의 행동으로 옮겨주는 감정의 기복이다. 인간에게 호혜성을 끌어내는 것은 바로 감정이다. 이 감정은 이타주의가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때 그것을 향해 행동하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매체이다. 이타주의적 행동의 형성이 유전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한 사실은 우리 과학사에서 가장 불행한 발견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선악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어떤 방법을 찾느라 언제나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서 인간의 도덕적 구속감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도덕적 감정, 즉 이타주의적 감정이 개인의 이익과 궁극적으로 유전자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만 설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싶지 않는 심정으로 살고 싶을 것이다. 그 대신 그러한 설계가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들에게 더 가치 있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모든 기업체들은 지상에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을 것이고,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노조들은 파업은 벌이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선호하고 주부들은 물건을 아끼고 재활용을 하려 애쓰며 자동차를 몰면서 창 밖에 콩초를 버리거나 크락션을 함부로 질러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의 권력욕과 탐욕스러운 이권추구와 부패로 얼룩진 더러운 늪을 보고 있노라면 생물학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타적 행동이 개인의 복지를 주는 것은 물론 한편 국가의 이익을 저해하면서 작동된다는 사실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유일무이하게 상호 이타주의에 익숙한 존재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탁월한 장사꾼들이다.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타주의의 참된 인간화를 위해서 도덕성을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해 봄으로써 보다 차원 높은 이타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도덕성의 근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옛날의 전통적인 대답은 “신이 주신 것 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찰스 다윈의 시대 이전의 사고방식에 새삼스럽게 동의하고 싶은 심정은 무엇 때문일까?